본 서신은 2023. 12. 31. 기준 주식회사 인포바인(이하 “인포바인”) 주주명부상 인포바인 발행 보통주식 5,000주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께 발송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소기재 오류, 보유주식의 처분 등을 이유로 오발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본 서신의 수신자가 현재 인포바인 발행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바인 주주님

저는 본 서신 작성일 현재 인포바인 발행주식 12,250주를 보유하고 있는 허권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면, 저는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기현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위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서 변호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시에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를 운영하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직무도 2024. 4.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불쑥 우편물로 인사를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작스레 등기우편을 받으시게 되어 많이 놀라신 분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인포바인 주식

제가 이렇게 서신을 보낸 이유는 인포바인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련의 주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인포바인은 매해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과 신사업 투자에 소극적인 관계로 10년간 제자리 주가를 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일 평균 거래량은 6,000주로 일 거래대금은 1억 2천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소외된 지는 오래되었고, 기존의 주주들도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포바인은 2024. 9. 30. 현재 816억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발행주식총수의 32.89%에 이릅니다. 그러나 인포바인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인포바인 주식은 시장으로부터 철저한 소외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인포바인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2024. 12. 19. 현재 0.4에 불과합니다.

저는 회사 측에 주주환원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회사 측 담당자와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회사 측

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경주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포바인은 상장회사인가?

현재 회사는 배당수익률 4% 대의 배당을 하는 것만으로 상장회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배당을 받을 권리는 주주가 가진 여러가지 권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상장회사는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신뢰하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기업설명회를 통하여 회사의 비전 등을 설명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의 언론 활동을 통하여 회사가 시장과 언론에 관심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이익이 충분하게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거나,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개척하여 회사의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고 실현하여야 합니다.

익히 잘 아시다싶이 인포바인은 이러한 활동을 어느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사주는 7년째 발행주식총수의 무려 32.89%에 달하지만 조금도 소각하지 않고 있고, 회사는 자사주를 새로이 취득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만 몇 년째 연장하면서 증권회사에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인포바인은 충분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인포바인 주식을 매입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인포바인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i) 감사 선·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과 (ii) 자사주 공개매수 등의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가 지금까지 사내유보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시키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회사 측 우호 지분을 고려할 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목표도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전화를 통해서 또는 직접 만나뵙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 검색해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 소액주주연대를 도와 아세아제지 등 다수의 상장회사들이 의미있는 주주환원책을 시행하도록 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본 서신 맨 앞에 저를 상세하고 소개드린 것은 저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인포바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본 주주운동은 제 경험과 전문지식 그리고 순전히 저의 사비로만 충원될 것입니다. 주주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추후 필요한 때에 의결권 행사에 동참하시는 것뿐입니다.

현재 인포바인 주주는 37명, 198,155주, 약 6.2%가 모여있습니다. 인포바인 주가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주주님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주주분들은 아래 주소의 단체 카카오톡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톡방 주소: https://open.kakao.com/o/gwoPnP6g

주주운동 홈페이지 주소: https://heyholder.com/proposal/21

오픈 카카오톡	주주운동 홈페이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포바인 주주 허권 드림

Office: 02-583-7100
Mobile: 010-3473-3288
Email: khur@weonlaw.co.kr